

Christian Dior의 재조명

- 패턴제작방식 중심 -

채수경* · 천종숙

삼성아트앤디자인인스티튜트 조교수*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의류환경학과 교수

I. 서론

꾸뛰리에 꾸뛰끄의 시초는 주문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주는 형태로, 신분과 지위의 상징으로 시작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디자이너의 이름보다는 실제적으로 유용한 것이 주목받게 되면서 기성복의 출현이 나오게 되었고 꾸뛰리에는 축소되어갔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과 사회적으로 출세한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쟁말기의 소비자 심리와 병합하여 다시 꾸뛰리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쟁과 uniform의 시대라 할 만큼 부족과 결핍의 시대였던 1940년대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크리스찬 디올의 첫 번째 컬렉션은 "New look"으로 각광을 받으며 그는 프랑스 패션의 대명사로 1950년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의상의 특징에 따라 디자이너를 분류한다면 Christian Dior는 호사스러움을 추구하는 Couture의 전형적인 라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의 분류에 속할 것이다. 1957년 디올이 사망하기까지 10년간 발표한 22라인은 '50년대의 의상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여기서 보이는 의상들은 여성의 실루엣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현대 기성복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패턴 제작방식을 사용한 것이 보여지므로, 그 패턴제작방식을 연구하여 재조명하는 것은 현대 의상의 발전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II. Dior의 22 라인 (collection theme)

Dior가 디자이너로 활동한 10년 동안 매해 봄, 가을 두 번의 collection을 발표하였으며, 각 collection의 theme과 주요 라인은 다음 표과 같다.

III. 재조명할 디자인의 선정

1954년에 들어서면서 크리스찬 디올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코르셋의 탈피와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인가"를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핵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제작되어진 의상들은 기성복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닥트 라인과, 디테일을 사용하여 couture의 상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라인을 창출하였으므로, 이러한 디자인의 창출을 위한 패턴 제작 프로세스의 특징을 연구, 분석한다.

년도	Theme	주요 라인
1947	Corolla	피어나는 꽃잎 inspiration. 넓은 힙과 가는 허리 강조 전체적으로 춤추는 듯한 선으로 "New Look"으로 극찬받음
	8	매우 분명하게 cut된 라인. 강조된 가슴과 가는 허리. 힙에 엑센트
1948	Zigzag line	실용화된 new look 출현 경사진 hem 라인과 길에 달린 패널로 Z자 모양의 밑단
	Envol	'날아오름'이란 의미. 앉는 것보다는 걸기 위해 만들어진 드레스
1949	Trompe	포켓과 치짐의 다양한 효과와 풍성한 스커트
	Milieu du siecle	trompe와 유사, stocking license 시작
1950	Vertical	강한 수직라인이나 본질적으로 여성스러움. 좁은 스커트, 힙선까지 주름이나 godet 사용. 낮은 포켓 위치
	Obilique	건축양식에서 유래, 위는 좁고 밑은 넓은 A라인
1951	Naturelle	자연스런 선에 기초한 다원형 라인. chicken thigh sleeve
	Longue	모자에서 발끝까지의 긴라인, 자켓이 가슴을 감싸도록 바이어스 재단
1952	Sinueuse	V넥크와 짧은 소매의 스웨터형식의 드레스. 최초의 loose한 허리선
	Profilee	부드러운 윤곽라인. 자켓의 비정형화된 실루엣을 위해 단추 사용 배제
1953	Tulip	낮은 소매와 볼륨을 표현하는 슬로핑 어깨. 종아리 길의 직선적 코트
	Vivante	에펠탑과 파리의 돔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적이고 기술적으로 디자인 윤곽 선은 강한 튜립라인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루즈하게 커트
1954	Magnet	계곡의 백합이란 뜻으로 허리선,벨트론 통해 길어감의 효과를 깨고 모 자, 가슴, 스커트를 풍성하게 살림
	H - Line	엠포이어 라인과 힙 길이 스웨터에서 힌트를 얻어 허리선 없앤 코르셋으로부터 탈피하는 시점.
1955	A - Line	vest dress 로 소매없는 베스트 형식의 탑과 플레이어의 A 라인. 낮에는 짧은 소매의 자켓과 밤에는 팔을 드러내고 입음
	Y - Line	가슴선이 높은 새로운 라인. 튜립 라인의 재생. 동양적 요소를 가미함
1956	Fleche	Y 라인의 지속, 프린세스 커트 제거
	Aimant	다시 등장한 마그넷 라인, 둥근 어깨 강조한 케이프
1957	Libre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라인, 대부분의 자켓은 마그네티라인
	Fuseau	libre와 큰 차이 없음

IV. 패턴 설계 프로세스 및 디자인의 활용방안

선정된 디자인은 허리 다트선의 위치와 방향, flap 포켓의 flap 부분이 자켓 몸판과 연결되어 1장으로 재단되어진 점, 그리고 목 주위가 마치 스카프를 두른 것처럼 풍성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하여, 1차로 입체재단법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 낸 후, 2차적으로 평면재단법을 이용하여 허리 다트선의 이동과

포켓의 형성, 그리고 목주위의 풍성함을 추가한다. 자켓의 뒷판은 입체재단으로 제작한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며, 소매는 2pc로 제작한다. 또한 스커트는 기본적인 프린세스라인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완성된 의상은 허리 다트선의 이동과 flap 부분의 가로 절개선이 없어지므로 허리 부분의 실루엣이 극대화 되며, 칼라부분의 풍성함이 더욱 살아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의상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전문직 종사자가 On-time 개념으로 착용하면 적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 디자인의 활용방안으로는 1) 목부위의 디테일을 살린 코트, 2) 자켓의 디테일을 포함한 상태의 원피스, 3) 여름엔 sleeveless로 디자인을 조정하여 vest 와 skirt 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